

운젠 온천 역사 탐방 코스 : 흥법대사 구카이상

시마바라반도에는 종교적 격변의 긴 역사가 있습니다. 700년대부터 이 지역은 대규모 불교 공동체였으나, 1500년대 후반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유명한 승려 구카이(774년-835년)의 석상 등 종교적 상징이 기독교인들과 불교도들의 충돌로 파괴되었습니다. 시마바라·아마쿠사 잇키(1637년-1638년)는 일본에서의 기독교 번영을 종식시켰고, 불교가 종교적 지배의 위치를 되찾았습니다.

구카이상의 참수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. 에도시대(1603년~1867년)에 신도와 불교는 신불습합이라고 하는 융합된 신앙체계가 가장 일반적으로 확산되어 있었는데, 1868년에 새롭게 메이지 정부가 수립되면서 신도를 국교로 삼기 위해 신불분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. 두 종교가 분리되면서 잦은 폭동이 일어나 수많은 불상과 법구가 파괴되거나 분실되었습니다.

이 구카이의 석상은 복원되었지만 아직도 머리가 없는 석상들을 곳곳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, 이는 시마바라반도의 혼란스러웠던 과거를 지금에 전하고 있습니다.